관심사 독해 2026-10-30
감사의 계절

2026년 10월 29일(한국 시간 기준 전날)의 RSS 피드 새 글을 전문 독해한 리포트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를 뺀 17개 중 접속된 12개의 새 글 17편. 그중 16편을 다루고 1편(링크 모음)은 생략했다. 나머지 5개 피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는 이날 표준 수집 요청에 403(접근 거부)을 반환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차단 우회(식별자 변경 등)는 하지 않으며, 지속되면 운영 방침을 별도로 보고한다.

오늘의 큰 이야기는 감사다. 인공지능(AI)이 노벨상급 경제학자들의 논문 138편을 샅샅이 감사해 문제 2,035개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AI가 사람 심사위원보다 논문 심사를 잘한다는 하버드 연구진의 논문도 같은 날 소개됐다. 학회 등록 기관이 출판사의 손들어주기를 뒤집으려 하고, 법원은 출판사에 대한 10억 달러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아픈 데를 짚었다. 계절도 감사의 계절이다. 할로윈을 맞아 한 신학 블로그는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해부한다. 누군가를 괴물로 만드는 것도, 논문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도, 감사가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이다.

---

1. AI가 경제학을 감사하다

마지널 레볼루션에 올라온 이날의 가장 큰 소식이다. 익명의 독자가 진행한 'AI 감사 프로젝트'가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에마뉘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만이 관여한 논문 138편을 AI로 감사한 결과를 블로그가 소개했다. **[사실 — 감사 측의 주장, 미검증]** 문제점 2,035개를 찾았고, 그중 147개는 헤드라인 숫자를 바꿀 만큼 심각하며, 논문의 69%에서 최소 하나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방법도 공개됐다. Claude Opus 5.5와 OpenAI의 GPT-6 Astra라는 두 AI가 서로의 작업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각 논문을 감사하고, 저자들의 복제 데이터와 원자료(세무 통계, 국민계정, 연준 자료)로 헤드라인 숫자를 재계산했다. 그 뒤 세 번째 '판정' 에이전트가 모든 지적을 재검증하고 반박을 시도해 살아남은 것만 등급을 매겼다. 가장 날카로운 관찰은 이것이다. 방향이 확인된 중대 오류의 97%가 논문 자신의 주장을 과장하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카우언은 인간 연구자 필 마그네스가 몇 년 전 그들의 작업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낸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AI가 인간의 추정을 확인했다"고 썼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이 감사는 동료평가를 거친 연구가 아니라 익명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고, 대상 학자들의 반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코노타임스 등이 보도할 만큼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감사 측의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같은 날 소개된 두 번째 논문은 감사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 하버드의 게리 킹과 스티븐 워딩턴의 "AI Article Reviews Dominate Human Peer Reviews at Their Best"(10월 25일자, 저자 홈페이지에서 확인됨)다. 초록의 문장 그대로, AI가 쓴 논문 심사평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척도에서" 저널 편집자와 저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품질로 평가한 유료 인간 전문가의 심사평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것도 최고 모델도 아닌 Claude Opus 4.8 기준으로. 카우언의 논평은 이렇다. 자신이 24년간 매일 발표된 논문에 대한 논평을 링크해 왔을 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다가, AI가 "인간 심사자보다 예리한 고성능 분석"을 무기처럼 꺼내 들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Model that"). 그는 연구재단, 상 심사위원회, 대학, 저널이 자체 AI 감사를 최대한 많이 하라고 촉구한다.

세 번째 글은 같은 주제의 학술 연구다. 미시간대 강톈위(Tianyu Jiang)와 왕위칭의 논문으로, ChatGPT 출시 이후 경제학 연구의 생산성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NBER 작업논문 기록과 227명의 경제학자 설문으로 분석했다. **[사실 — 논문의 발견]** 연구조교(RA)가 없는 저자들의 톱 저널 게재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원 격차는 좁혀졌지만, 선임과 초임 연구자 사이의 격차는 벌어졌다. AI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초임 연구자들인데도 그렇다. 논문의 설명은 이렇다. AI는 '실행'의 수익을 체감시키지만 '개념화' 능력의 수익은 체증시키고, 경험 많은 연구자는 개념화에서 강하다. 실행 제약이 사라질수록 축적된 전문성의 수익이 커진다는 모형이다. 이 블로그의 세 번째 'AI 아카이브' 기획(이번에는 카우언과 타바록의 AI 관이 2011년 체스 컴퓨터 논의에서 2026년 의식 논쟁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ChatGPT가 인용과 함께 정리한 글)까지 합치면, 이날 하루 마지널 레볼루션은 사실상 'AI 시대의 지식 생산' 특집이었다.

---

2. 저널 거버넌스 연쇄,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장

출판사가 무혐의를 줬지만 국가 등록기관이 다시 묻다

리트랙션 워치 보도. 학술지의 질을 국가가 평가하는 노르웨이의 과학 간행물 등록기관(Norwegian Register)이 Springer Nature의 저널 『Innovative Higher Education』에 대해 "표절이 일어났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 쟁점은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대의 아르투르 스트셀레츠키가 2023년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저널에 낸 ChatGPT 관련 논문 두 편이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의 미하엘 그로테-함메르 교수가 두 논문이 사실상 같은 학생 설문(앞 논문의 유효 응답 534건, 응답률 3.99%로 역산한 모집단 약 13,400명과 뒤 논문의 설문 대상 13,388명이 일치)을 쓰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중복'이라고 2024년 11월 두 저널에 신고했다. Springer Nature는 조사 끝에 "중복이 아니다"라고 저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기사가 지적하는 대목이 이것이다. 출판사가 신고자에게 보낸 설명 문구가 저자가 며칠 전 출판사에 보낸 해명과 "거의 한 단어씩" 일치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상호 보완적인 질문을 다룬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고, 두 논문의 합계 피인용이 1,100회를 넘는다. 등록기관은 내년 1월 재평가에서 이 저널을 '0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노르웨이 연구자들은 이 저널에 논문을 실어도 연구 실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 출판사 내부 조사와 외부 평가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1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 기각, 그러나 판사의 일침

같은 매체의 또 다른 보도. 공기정화 기술 업체 글로벌 플라스마 솔루션스(GPS, 현 GPS Air)가 자사 이온화 기술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Building and Environment』 게재 논문을 두고 Elsevier를 상대로 낸 1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이 10월 22일 연방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실] 케네스 벨 판사는 배심이 Elsevier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거짓임을 알거나 무모하게 무시하고 보도하는 상태 — 미국 명예훼손법의 핵심 요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4년 반, 법원 문서 400건 가까이 쌓인 소송이었다. 다만 판결문에는 아픈 지적이 둘 있다. 첫째, 해당 논문이 평균값을 썼다는 사실과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것. 이 생략이 과학적 의견에 대한 완전한 수정헌법 1조 보호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판사는 적었다. 둘째, 정보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편집자 이메일("논문의 질도, 내가 처리하는 질도 단조롭게 하락 중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을 언급하며 Elsevier가 "수익성에 지나치게 집중해 더 신중한 심사를 희생했을 수 있다"고 쓴 것. 다만 그것만으로 실제적 악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피어 리뷰를 통과 못 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심사위원 3명 모두 점수상 합격권이었고 수정을 거쳐 채택됐으므로 "이것은 명백히 피어 리뷰"라고 못 박았다. 회사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

3. 경제의 크기는 어떻게 재는가 — PPP 대 환율

이콘브라우저의 게스트 기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제프리 프랭클(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 콘퍼런스에서 폴 크루그먼이 한 '지오이코노믹스(geoeconomics,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경제력의 무기화)' 강연을 비판한다. 논점은 기술적으로 보이지만 함의가 크다. 나라 간 GDP를 비교할 때 무엇으로 환산할 것인가. 시장 환율이냐, 각국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환율이냐. [사실] PPP로 재면 중국은 2017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시장 환율로 재면 미국이 아직 47% 앞선다. 크루그먼은 국방비나 해외 기지처럼 국내에서 조달하는 역량까지 따지면 PPP가 맞다고 본다. 프랭클의 반박은 두 갈래다. 첫째, 제재, 무역 협상, 해외 해군기지처럼 '세계 무대에서의 구매력'이 문제라면 국내 물가가 아니라 시장 환율로 사는 것이 맞다. 둘째, 크루그먼이 PPP를 택하는 이유인 '환율의 변동성'은 PPP도 피해가지 못한다. 세계은행의 국제비교프로그램(ICP) 추정치는 개정 때마다 요동친다. 중국의 2005년 PPP GDP는 2011년 조사에서 40% 하향 수정됐다가 다시 약 20% 상향됐고, 태국은 -20%, +43%, -3%, +7%를 오갔다. 명목 환율의 연간 변동보다 큰 수정이다. [해석] '누가 세계 1위 경제인가'는 헤드라인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재는가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방법론 이야기다. 지난 10월 28일 리포트의 '겉수치와 속수치'와 맞닿는다. 생활 수준 비교에는 PPP, 힘의 비교에는 시장 환율 — 용도가 측정을 정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미국 경제 단신 두 가지

GDP 속보치 발표 전야. 3분기 GDP 속보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각 기관의 나우캐스트(실시간 성장률 추정)는 견조하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의 '코어 GDP'(민간 국내 최종 구매자 대상 판매 — 재고와 무역 변동을 걸러낸 수요 추세 지표) 나우캐스트는 연율 4.7%로 2분기(4.6%)를 웃돌고, 설비투자는 20.9%(2분기 13.4%)로 급증 추정이다. **FOMC, 동결 그러나 두 표의 이견.** 10월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3.75~4.0%로 동결했다(10대 2). 이탈한 2표는 인상을 원했다. CNBC와 연준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이콘브라우저는 제이슨 퍼먼과 애틀랜타 연준의 '테일러 규칙'(물가와 고용에 따라 적정 금리를 계산하는 경험 규칙) 도구를 인용해, 이 규칙에 따르면 현재 금리가 낮은 편이라는 것이 인상파의 논리라고 설명한다. 소비자 심리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10월 29일 리포트 참조) 성장은 견조하고 물가 압력 논쟁이 계속되는 그림이다.

---

4. 할로윈의 신학 —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실험신학 블로그가 으스스한 계절의 마감을 앞두고 올린 두 편이다. 첫 글 "괴물과 희생양에 대하여"는 저자의 첫 책 『Unclean』 6장의 발췌다. 핵심 개념은 '사회도덕적 혐오(sociomoral disgust)'다. 사람을 도덕적·영적 오염원으로 경험하는 감정이다. 놀이터의 '전염병 놀이'에서 시작해, 사회적 스트레스 시기에는 이미 혐오와 연결된 집단이 공동체의 비난·공포·편집증의 위치를 제공하면서 최악의 비극으로 확장된다. 괴물화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숨긴다는 것이 이 글의 예리한 지점이다. [저자의 분석] 희생양 삼기는 지목되면 사회적 악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괴물'은 다르다. 괴물은 혐오 심리를 활성화해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무고한 수동체가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로 그려져 폭력을 '방어'로 바꿔 놓는다. "아무도 자신이 희생양 삼기를 한다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괴물 토벌은 너무나 흔하다." 괴물의 라틴어 어원 monstrum은 '징조, 경고'다. 신화 속 괴물이 대개 혼종(미노타우로스, 켄타우로스)이라는 관찰에서 저자는 혐오가 '신성 차원(divinity dimension)'을 감시한다고 분석한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금지된 혼합이 괴물을 만든다. 인간에 벌레 머리가 붙으면 괴물이 되지만 천사의 날개는 고양으로 읽히는 이유다. 나치 선전 영화가 유대인을 쥐와 겹쳐 보여준 것이 이 메커니즘의 역사적 사례로 제시된다. 희생양 삼기는 "혐오의 구토 반응에 해당하는 종교적·사회적 유사물", 즉 오염원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폭력적 거부라는 정의가 이 글의 정점이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복음 이후의 근대인은 마녀사냥을 경계하게 됐고, 프랑켄슈타인이나 『미녀와 야수』처럼 괴물 이야기에는 종종 '폭도가 진짜 괴물'이라는 전복의 서브플롯이 들어 있다. 니체의 경고("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로 닫는다.

두 번째 글은 지난해 세 편을 묶어 다듬은 『드라큘라』 론이다.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소설 중 하나"라는 주장의 근거는 저자가 '기독교 리얼리즘'이라 부르는 것, 즉 이 소설에서 기독교가 세계의 존재론(무엇이 실재하는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작품 분석] 과학의 사람 시워드 박사는 루시의 병만 보지만, 반 헬싱은 병과 악을 함께 본다. "우리 과학의 잘못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며, 설명하지 못하면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 있다"는 반 헬싱의 대사가 인용된다. 소규모 사실의 조약돌이 큰 진리의 기차를 탈선시키게 두지 말라는 것이다. 작중

인물들은 함께 기도하고 이 싸움을 영적 전투로 명시하며, 성찬의 성체(Consecrated Host)가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핵심 무기로 쓰인다. 개신교 신자인 조너나 하커가 십자가상에서 위로를 얻고 "이 물건 본질에 뭔가 있는 것인가" 묻는 장면을, 저자는 구세계의 신앙과 근대 과학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의 서사로 읽는다. 어제의 이식 충격 연재(개신교 공간에 가톨릭적 실천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이유)와 무심코 이어지는 꼭지다.

---

5. "공은 내가 떨어뜨리겠다" — AI에게 집안일 관리를 맡기지 않는 이유

크룩드 팀버의 에세이. 저자는 배우자와 육아의 손작업은 반반씩 하면서도 '관리 노동'(아이들 일정을 기억하고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일)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현대 공동육아의 익숙한 의식을 치른다. 때마침 뉴욕타임스 기사 "AI 앱이 엄마의 제2의 뇌가 될 수 있는가"를 읽는다. 학교 도서 반납일을 놓친 아이를 위해 회전 일정표를 사진 찍어 AI 에이전트에 올려 알림을 받는 가족의 사례로 시작하는 기사다. 인용된 설문에서 부모의 3분의 2가 AI가 정신적 부담을 줄여줬다고 답했고, 평균 절약 시간은 주당 58분이었다. 저자는 우선 두 가지를 정리한다. 이 부담이 경험적으로는 주로 엄마들에게 쏠리지만 '엄마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여야 하고, 개별 가정의 문제이기에 앞서 구조적 문제라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럼에도 AI에 관리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유를 스스로 파고드는 과정이 이 글의 본령이다. 시작 비용이 겁나고, AI가 두렵고 화가 나며, 사회 문제는 함께 겪어야 한다는 신념도 있지만 — 정직하게 덧붙이길 자신도 개별적 해결책에 의존할 때가 많다 —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로봇이 이 공들을 우리 대신 저글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로봇이 우리만큼 잘 저글링할 수 있어도." 부엌 벽에 걸린 달력은 나와 '함께' 저글링하지만 AI는 나를 '대신해' 저글링한다. 정확히 그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신경 쓰는 선이다. 여기서 70대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의사들이 거듭 권하는 GLP-1(비만·당뇨 치료제)을 "살은 내 힘으로 빼고 싶다"며 거절하는 친구다. 저자는 그 선택을 이해하고 존경하면서도 틀렸다고 본다. 기술의 도움으로 잘 관리되는 것이 의지로 덜 관리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 관리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그 친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더 잘 저글링되지만 나에 의해 저글링되지 않는 것보다, 나에 의해 저글링되는 것이 낫다." **[저자의 추론]** 어쩌면 저자는 이 역사적 순간의 부모 역할에서 관리 노동이 핵심 요소라고 믿는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유리 공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경험의 일부로 원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저자는 자기 기만의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 둔다. 시작 비용에 겁먹은 게으름을 '신 사과'처럼 합리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마무리가 이 글을 단순한 테크 찬반론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에세이로 만든다.

---

6. 마케팅 이전에 — 한 마케팅 만화에서 일본 공산당을 떠올리다

일본의 종교·사회 블로그 카미야 연구소(紙屋研究所)의 글. 저자는 스즈키 미소의 경영 만화 『구로토리 히나의 마케팅 파일』(닛케이BP의 기업 기사를 만화 스토리로 옮긴 시리즈) 3권을 단숨에 읽고 뜻밖의 것을 떠올린다. 만화가 그리는 것은 'V자 회복의 천재적 발상'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조사와 청취, 그에 근거한 개선이라는 지독한 — 바꿔 말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 노력의 축적이다. 돈키호테가 자체 브랜드 상품의 포장지 문구를 다른 부서 사람까지 불러 토론해 갈아 닦고, 그렇게 만든 것을 고객이 지적하면 따르는 고객 최우선주의. 피트니스 체인 리자ップ의 '초코자푸'가 마케팅 조사 대신 실제 점포를 열어 A/B 테스트를 반복하고 지역에 맞는 전단을 만든 끝에, '헬스장에 오지 않는 보통 사람'을 고객으로 바꿔 놓은 이야기. 통신판매 회사 야즈야의 직원이 고객 전화를 받고 손편지를 보내는 일이 "어르신에게 한정되지 않고 무섭도록 효과가 있다"는 대목. 여기서 저자는 일본 공산당의 드문 소선거구 당선자였던 야마하라 겐지로가 만난 사람마다 반드시 편지를 썼다는 일화를 떠올린다. 그런 축적이 마케팅이 아닌가.

이어지는 후반부는 날선 조직 비판이다. [저자의 견해] 기업의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이 정당에는 득표와 당세 확장인데, 일본 공산당에는 그 이전의 문제, 즉 '조직체로서의 체질'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증상'이 제시된다. 첫째, 과대한 목표.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 독자·당원 확대 목표가 평소 "하겠습니다"로 결의하던 현 위원장들마저 움츠러들 만큼 비현실적이었다는 것. "목표를 해낼 자신이 있냐고 하면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복수의 발언이 당수 시이 가즈오의 총괄 발언에 인용돼 있다. 이에 대한 지도부의 대답이, 전 대회 때와 똑같은 — 당원 작가 미야모토 유리코의 에세이 「자신의 있고 없고」 인용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동기에 대해야 자신의 유무를 말할 수 있다"는 이 에세이는 본래 충분한 객관 조건이 있는데도 주저하는 이에게 보낸 격려이지, 조건 제시 없이 무리한 목표를 강요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선 대회의 '3할 증가' 목표는 어느 도도부현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크게 줄어 "실패는 검증이 끝난" 것인데, 검증 없이 같은 수법이 반복됐다는 비판이다. 둘째, 과대한 찬사의 홍수. 시이의 강연에 대한 아카하타 지면의 찬사들("역사의 톱니바퀴가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세계사의 전환점이 될 충격")을 열거하며, 저자는 이것을 개인 숭배에 가까운 것으로 평한다. 진짜 좋은 강연이라면 접할 기회를 늘리면 자연히 평가가 퍼질 일이지, 강연하는 쪽에서 찬사를 흘려보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공산당에 필요한 것은 돈키호테나 마루가메 세멘 같은 '마케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니덱 같은 조직 개혁이 아닐까. 과학과 합리성을 말하기 전에 직면한 사실을 봐 달라는 것이 이 글의 소원이다. [해석] 어제의 이식 충격 연재가 '토양을 바꾸지 않고 식물만 옮기는' 조직의 실패를 다뤘다면, 이 글은 같은 구조의 일본 정치 판이다. 도구 도입 이전의 조직 체질이라는 문제 설정은 어느 조직에나 적용된다.

---

7. 카페 하이에크 단신들

- **프랑스와 채권시장.** 조지 윌의 칼럼 인용. 프랑스 재정 위기를 두고 "채권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경제학자이자 최고의 정치 분석가"(로빈 위글스워스)라는 문장이 눈에 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차입(전쟁 승리, 기반시설)은 미덕이지만 현 세대 소비를 위한 차입은 퇴폐이며,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못 할 때까지." 10월 25일 리포트의 프랑스 국가부채 꼭지와 이어지는 관전 포인트다.
- **경제 민족주의 논문.** GMU 동문 폴 뮬러의 새 논문 요지. 미국 연방정부가 현재 약 30개 민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의 '10% 보편 관세'는 이미 폐기됐다는 사실 관계가 논문 서론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 논문은 '뉴 라이트'(포스트자유주의, 국가보수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주의)의 경제 민족주의가 시장 왜곡과 성장 저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 **수출은 비용, 수입은 이득.** 오늘의 인용은 피에르 르미외의 『보호주의의 무엇이 문제인가』(2018). 수출은 자국 자원을 외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고 수입이 이득이라는 명제를, '수출품을 싣고 간 배가 돌아오는 길에 가라앉는다면'이라는 귀류법으로 증명한다. 중상주의자가 "대신 돈을 받으면 된다"고 답할 것이라는 운영자의 덧붙임이 뒤따른다. 돈은 결국 수입을 살 때만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 **이민 단속과 노동 공급.** 50년 경력의 이민법 변호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서한. 오랜 비범죄 이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농장, 병원, 건설 현장의 공급 충격으로 이어져 모든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단속에 반대하는 논증이 아니라, 경제 현실을 무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증"이라는 문장이 요지다.

짧은 메모

- **디자인 대담: 로먼 마스.** 카우언이 팟캐스트 『99% Invisible』(누적 5억 회 다운로드)의 진행자 로먼 마스와 디자인을 주제로 대담했다. 발췌문은 화폐 디자인. 마스는 크기별로 구분돼 시각장애인도 구별 가능한 호주 폴리머 지폐를 최고로 꼽고 달러를 "꼴찌"로 두며, 카우언은 오히려 달러의 '눈과 피라미드'의 괴상함과 "세계가 우리에게 적응할 것"이라는 오만을 사랑한다고 받는다. 스위스 프랑에 수학자 오일러를 넣었던 시절 이야기가 곁들여진다.

오늘 생략한 글

마지널 레볼루션의 수요일 링크 모음 1편. 다룬 16편과 합해 17편이다.

오늘의 필독 링크

- 사에즈-주크만 논문 AI 감사 결과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errors-in-the-research-of-emmanuel-saez-and-gabriel-zucman.html
- AI 심사가 인간 심사를 앞서다 (King & Worthington) — https://gking.harvard.edu/peerless/

- 노르웨이 등록기관 vs Springer Nature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9/innovative-higher-education-springer-nature-norway-registry-duplication/
- Elsevier 10억 달러 소송 기각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8/global-plasma-solutions-gps-elsevier-lawsuit-defamation-ruling/
- 프랭클: 경제 크기는 어떻게 재는가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0/guest-contribution-europe-the-us-and-china-comparing-geoeconomic-size
- 괴물과 희생양에 대하여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on-monsters-and-scapegoats.html
- 공은 내가 떨어뜨리겠다 — https://crookedtimber.org/2026/10/29/id-rather-drop-the-balls-myself/
- 마케팅 만화에서 공산당을 떠올리다 — https://kamiyakenkyujo.hatenablog.com/entry/2026/10/29/221641